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 안중에도 없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군산서 도내 첫 검출

조국당, 장수군수 하천 사유화 직격
“하천 점용·토지 취득 윤리 붕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고령”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장수군수가 사저 앞 공공하천을 개인 마당처럼 장기간 사용하고, 취임 후 역점사업 인근 토지를 가족·측근과 공동 취득했다는 보도는 단순 과오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중대한 붕괴다”며 “허가권자의 ‘셀프 허가 가능성, 점용·원

상복구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또 “공공하천의 사실상 사유화와 뒤늦은 점용허가 신청은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위반했고, 현장 확인 직전 불법 시설물을 치웠다는 의혹은 사후 정상화 핑계로 비친다”고 전제한 뒤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의 가족·측근 공동 취득은 직무정보 활용 의혹과 개발이익 연결 가능성이 짙은 전형적 이해충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일탈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탈이 전북 정치의 일당독주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며 “장기 독점은 인사·감사·의회 견제의 삼중 안전장치를 무력화했고, 같은 편이면 눈감는 문화가 행정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부패한다는 것.

조국당은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천

무단점용의 경위·기간·면적, 변상·과태료 산정의 적정성, 허가 절차 위반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 장수군의 상시적 이해충돌 차단장치 가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수 군수·부군수·정무직 및 관련 부서의 최근 5년 토지·부동산 취득 전수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자원과 공적 절차의 사유화”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만경강 일대 야생조류 항원 확인
반경 10km 예찰·농가 방역 강화

전북도는 지난 27일 군산시 만경강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다.

도는 즉시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 강화와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닭 1호 농가에는 21일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외 한 소규모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조류인플

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도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모든 닭·오리 농가가 출하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된다. 도는 검출 지역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출입 통제와 함께 철새 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1달 늦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 종사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도-정치권 혼연일체로
국가예산 결실 창출”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연고 국회의원들이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체 증액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안호영 “새만금호 수질악화…군산항 준설토 활용해야”

안 의원, 저층 오염물질 재방출 우려
“군산항 준설토 매립용재 검토해야
환경부-해수부-새만금청 협의의사급”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안호영 의원

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척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은 “조력발전소를 포함해 해수 유통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토를 통해 매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집어 저층·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지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해 매년 준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바다에 단순 투기되고 있다”며 “이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항만 준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내부 준설토를 매립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해수부, 국토부, 새만금청이 함께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새만금청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워크숍 “365일 현장 중심 안전 강화”

시군별 지표 분석 추진상황 점검
사망사고·위험요인 집중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의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별 지표 분석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지자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5개(특·광역시도 시군구) 그룹으로 나눠 상대 평가하고 매년 공표하는 지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5년 산출지표를 공유하고, 주요 변동 사항이 지역별 안전지수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를 낮추고 주민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반영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전략을 중심으로 시군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지역안전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는 낮추고, 위해를

줄이는 ‘경감지표’, 생활습관 및 주민 참여를 반영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세부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 관리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전반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2025년 3월부터는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 실무회의, 안전마를 만들기 등 연계사업 추진,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광도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중심의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전북자치도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 중 3개에서 우수 등급을, 2개 분야는 보통(3등급) 등급을 받아, 전국 9개 광역도 중 2번째로 고른 지수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D 전북타임스

전북타임스신문

정론직필의 원칙을 따르며,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금암동)5층

전북, 1조2천억 ‘인공태양 프로젝트’ 새만금 유치 총력

핵융합 연구인프라 새만금에 제한
플라즈마 기술집적지 강점 부각
도·정치권 한목소리로 유치 총력
유치시 350명 고용·산단 파급 기대

전북도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간 진행되며 핵융합 기술개발에 3,50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8,500억 원 등 총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지 선정은 11월 말 발표될 계획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인공

태양’으로 불린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방사능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폭발 위험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은 공모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최소 요구 면적인 50만㎡를 초과하는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왕복 6차선 진입로가 확보돼 있다. 전기·상하수도 인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2027년 말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착수 시기와도 연동된다.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다.
군산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2012년 개소 이후 플라즈마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플라즈마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시설과의 기능 집적화가 용이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과 RE100 산단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실증단지가 인접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도 유리하다.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배후도시인 전주와 군산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인력 수급과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치 성공을 위해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슬로건 아래 유치 성공기원 결의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첨단 연구 인프라가 새만금에서 시작되길 바란다”며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도는 지난 23일 새만금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유치대응TF 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도내 주요 혁신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산시와 함께 유치기원 릴레이 피켓 퍼포먼스, 서명운동, 주민 간담회 등을 추진해 도민 참여 분위기

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연구시설 건립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직접 고용하는 인력만 350명 이상이며, 전기전자 및 초전도 관련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입주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유치를 통해 ‘전북 R&D특구 트라이앵글’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너지 연구거점(새만금), 농생명융합 연구거점(전주·완주), 융복합 혁신연구거점(정읍)을 잇는 첨단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이미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위치한 만큼 핵융합연구원의 기능 집적화를 위해서도 새만금은 매우 유리한 위치”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서 새만금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군산항 매물 위기 심각…상시준설해야”

수심확보 난관 항만 경쟁력 저하
“해수부 군산항 예산 확대해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년 320만㎡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 매물위기로 상시준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하지만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

평택항 25년도 준설 예산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고, 경인항은 전년 대비 13배로 급증했지만, 군산항은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군산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군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4년에는 전년 대비 군산항 물동량 6%감소, 자동차 물동량 26%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가무역항으로 호남권 산업·물류의 중심항만인데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군산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통항을 위해 준설예산 확대 및 준설시기, 구역, 준설량 등 수요조사를 통해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준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道-지역·연고 국회의원 ‘혼연일체’ 예산 증액 총공세

서울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새만금·AI·문화 등 집중 건의
미반영 70대 중점사업 반영 추진

전북도가 3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이날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관영 지사는 도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인 반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안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새만금·AI·문화·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 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이 집중 검토됐다.
전북의 미래 성장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함께 다뤘다. 여기에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제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부지 유치 공모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선정 ▲자선운용중심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협의회 이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설립 등 국가예산 사업 ▲공공보건의료대학



전북도는 3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시급한 복지 분야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정오에 열린 전북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는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거론됐다. 도는 새만금·AI·농생명·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축 중심으로 총 28건의 상임위원 중개 건의 사업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국회단계 반영과 주요 현안, 입법지원 등도 협의했다.
전북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노홍석, 김중훈 부지사·실국장 역할분담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 면담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회 상주반 운영과 도·시군·정치권 간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정철 기자



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전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4인 위촉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운영 등에 대해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도의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감사청구요

건의 적합 여부 ▲감사청구 대상 여부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유효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감사 개시가 결정되면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도 감사위원회가, 도 자체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중 13건을 수리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 중대재해 감축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열어

익산 원광대서 개최 200여명 참석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공모전 시상

전북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30일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권현민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총회장, 공영철 전주고용노동시장장을 비롯해 건설·제조·서비스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 낭독 ▲안전보건활동 특강 ▲안전문화 실천 공모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 안전보건인 시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6명,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장상 9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서부지사장상 6명 등 총 21명이 표창을 받았다.

UCC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 2팀이 전북도지사상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우수상 4팀이 고용노동부 지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내 사업장들이 추진 중인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김은지 기자

가을 산행

안전수칙

기상정보
확인

등산 전
몸 풀기

적절한
휴식
취하기

낙엽 쌓인
곳 주의

일몰시간
전 하산

임산물
무단 채취
금지

등산
경로
확인

흡연 및
취사
금지

전북중기청, 스마트공장 450개사 구축 지원

제조분야 AI 대전환 위한 2026년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오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10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총 12개 사업으로서, 올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불량 검출, 실시간 공정 제어 등 의사결정과

실행이 자율화되는 'AI 공장' 구축 지원이 단계별로 크게 늘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율형공장(30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400개) △대중소 상생형 AI트랙(20개) 등에서 45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를 활용한 AI전환(AX) 기획지원 등 컨설팅도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조 AI 도입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완화 등 업종별 중소기업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장비를 개발해 확산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프로그램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 AI, 디지털 전환 기술, 핵심공정 최적화 등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 트랙도 신설할 예정이다.

스마트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과 노동강도가 높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오늘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 제조기업이 AI의 효용성을 보다 느끼고 제조현장에 AI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관련 예산(정부안 기준)을 80% 이상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제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한우먹는 날 맞이 한우 할인행사

최대 40%까지 할인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2025 소프라이스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소비자에게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세일에는 전북 관내 농협협하나로마트 및 축산물판매장 34개소가 참여한다.

할인행사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

지만 등급에 따라 등심 최대 30%, 불고기·국거리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축산물 판매장(하나로마트)에서 한우자조금과 함께 진행하는 본 행사는 시장상황 등의 여건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참여매장은 농협경제지주(nhagroup.com)와 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환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농가의 정성과 땀으로 길러진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기안전공사-소비자원, ‘소비자 위험 사례’ 공유

2017년 협약 세부 과제 사고 예방 캠페인 등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전기안전분야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2017년 양 기관이 맺은 '전기안전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세부 추진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결된 부속합의는 전기안전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예방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세부 사업을 포함한다. 양 기관은 부속합의에 따라 △전기안전

분야 위해-결함정보, 사고정보를 상호 교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해사항의 분석결과 공유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전기제품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전기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과 전기안전분야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검역본부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11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경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돼 약 7

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시범운영 시작 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

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수입준비, 수입검역), 검역 분야별(수입, 수출, 소독 등) 등으로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입 시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경희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전북신협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 실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전주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북신협 임직원이 참석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금융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협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금융협동조합으

로서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와 금융기관이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수 본부장은 “신협은 지역사회의 금융 뿌리로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과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전북신협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경제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 개최

지역 발전·성장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워크숍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심 지역 발전과 성장 생태계 구축’ 주제로 △우수조합(여수식품가공업협동조합) 견학 △우수 조합원사(㈜코인즈(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 방문 등으로 구성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식품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갑은)은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공동 패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악취물질을 지속적으로 낮혀가겠다”고 전했다.

통해 입주사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 사례를 공유했다.

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명환)의 우수 조합원사인 (주)코인즈는 여수시와 40억원 규모 신규 공장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시민 우선 채용과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재운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지자체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매출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경제로 환류될 때 진정한 상생이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

군산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리 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안전한 귀가 서비스 시민 참여 문제 발굴·해결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익산안심이 앱' 운영에 앞서 30일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참여단 25명이 참석해 발대식에 이어 안심이앱과 리빙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향후 참여 방향을 공유했다.

리빙랩은 행정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다.

'익산안심이앱'은 앱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다이어ום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한 귀갓길 경로를 이탈하거나 도착예정 시간 경과, 도움(SOS) 요청 등 발생 시 현재 위치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된다. 상황에 따라 경찰·소방과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군산새만금항 이·통장 60여 명 대상 현장교육

군산시는 30일, 군산항과 새만금항신항 일원에서 관내 이·통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군산새만금항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항만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항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새만금항신항 2개 선석이 내년에 개항 예정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군산항 외항관리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로부터 군산항의 역사와 기능,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이해력을 높였다.

이후 컨테이너부두, 양곡부두, 자동차부두 등 주요 부두시설을 둘러보며 항만 운영 현황과 하역작업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다음으로 새만금33선터로 이동한 일행은 무녀도, 신시도, 비안도 등 군산시의 6개 유인 도서로 둘러싸여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항신항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새만금항신항 공사 관계자로부터 신항 건설현황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신항 현장을 경유하면서 현장교육을 마무리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신항 관할권 확보와 지역 발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 전북도 청년몰 중 ‘매출 1위’

지난해 대비 58.4% 성장 ‘상상포차’로 자립 운영 청년 도전 전폭적 지원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성장세를 이뤘던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이 자립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시는 익산 청년몰이 올해 1~8월 기준 월평균 922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북도 청년몰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익산은 같은 기간 지난해 582만 원 대비 올해 922만 원으로 58.4% 성장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의 성장은 행정과 현장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시는 청년몰 활성화사업, 슬기로운 동네생활사업, 다이어ום 정책지원금 추가 10% 지급, 다이어ום·뉴딜 일자리 연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야시장 등 방문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뉴를 비롯한 점포별 컨설팅 제공과 청소·방역·화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성장세를 이뤘던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이 자립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사진=익산시>

재점점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홍보 강화를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이어ום·뉴딜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 SNS 관리와 콘텐츠 제작 등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이끌었다.

이 같은 시의 지원 기반 위에 익산 청년몰은 이달 3일부터 '상상포차' 운영을 시작하며 자립형 청년몰 전환을 위한 시

도에 나섰다.

상상포차는 상인들이 직접 기획·운영·홍보를 맡아 행사를 추진하고, 판매까지 책임진다. 시는 질서·안전·홍보 등 필수 공공 기능만 지원해 청년 상인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순항’

총사업비 365억원 투입 바이오·청년창업 허브로

정읍시가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10월 중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바이오와 청년창업을 키워드로 60일 이내 기업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

터 건립과 함께,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의 3대 정부출연기관·미생물센터의 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능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을 적극 유치해 농축산바이오는 물론 의료바이오까지 아우르는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육성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시작, 2029년 완공·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입주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해 가고 있다.

초기·1인 창업단계의 기업입주를 위

한 연구기관 보육동·전문투자사(AC·VC) 중심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터와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공장), 성숙단계의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을 종합적으로 계획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향후 산업단지 확장으로 초기창업부터 기업성장을 위한 단계별 입주공간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입주에도 해소와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성황’

쌍방향 소통 통한 상생 협력방안 모색

군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상인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와 배달의명수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연이어 질문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나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군산시의



정책, 향후 추진사업 반영 여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 모두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중심행정."이라며,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지역명소 ‘자리매김’

내장산 문화광장 방문객 전년 대비 17% ‘증중’

지난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 약 3달 만에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가 방문객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터가 위치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개장 전후 약 3달간의 방

문객 통신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결과, 평일에는 일평균 약 2000명, 주말·공휴일에는 약 7000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집중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방문 추이를 주한 평균과 비교한 결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10대 이하 유아층과 30~40대 주양육층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증가했

다. 이는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익산, 군산 등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새로운 단장한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양파 수급 안정 기반 마련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양파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파, 배추, 마늘 등 노지채소 중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의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다.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시는 익산원예농협과 공동면 용성리 일원 1만 5,791㎡ 부지에 총 면적 4,602㎡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온

저장고(3,360㎡), 예냉시설(242㎡), 전처리 시설(175㎡) 등이 들어선다.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5,000톤 이상의 양파를 저장·출하 조절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출하조절시설이 가동되면 양파의 저장·관리가 체계화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출하조절시설 구축은 양파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양파 주산지로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형 도시 혁신 구상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보고회

군산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민 중심형 도시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사람과 공간, 시간이 조화되는 스마트 군산'이라는 비전으로 △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신, 모두에게 열린 포용적 도시 △첨단 기술과 녹색 환경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근대문화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의 시간 디바이더와 스토리를 하나로 잇는, 지속가능한 군산의 스마트 생태계

등 4가지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술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의 중요성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시 미래상을 반영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 익산에 모인다

익산에서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룬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25 익산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승인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시민과 배드민턴 팬들을 위한 국가대표 사인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11월 8일 오후 2시에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 선수가 팬 사인회에 참여한다.

이어 9일 오후 1시에는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 공희용 선수, 오후 2시에는 남자복식 세계랭킹 23위 강민혁·기동주 선수, 여자복식 세계랭킹 22위



정나는·이연우 선수가 팬들과 만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지황, 미국에 1억7천여만원 수출 성과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발,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 정읍쌍화차, 쌍화시리얼, 쌍화누룽지 등 가공상품 10여종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이번에 개최된 LA 한인축제에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정읍지황 가공상품을 선보였다. 정읍지황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읍지황의 국외 판촉홍보를 위한 이번

수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은 지난 18일과 20일, 홈쇼 핑월드, 제일농용건재, 한남체인 등 미국 내 주요 유통업체와 체결했다. 이는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의 글로벌 유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는 정읍쌍화차, 쌍화누룽지, 쌍화스낵, 숙지황차·건지황차 등 다양한 가공상품의 미국 현지 판매와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한인 최대 소비권역인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 농산물, 수도권 소비자 사로잡아

군,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서 판촉 옥광밤·눈꽃복숭아 시식 '호응'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 기대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품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주관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조합장, 농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장에서는 옥광밤과 눈꽃복숭아를 활용한 시식 행사가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복숭아와 달밤떡, 견고추, 생강 등으로 구성된 '순창의 맛' 패키지가 방문객들에게 증정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여름에 만 볼 수 있었던 복숭아가 가을에 다시 나와서 신기하다", "순창 농산물은 정말 맛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반응을 보이며,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행사장에는 순창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과 X배너가 설치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으며, 현장 시식과 설명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순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는 순창의 우수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순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년 취업 돌파구 'NCS반' 가동

서류전형-면접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전문 교육기관 운영 취업 역량 강화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반'을 11월부터 운영한다. 군은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을 겪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관련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아 체계적인 학습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석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을 맡아 서류전형부터 필기, 면접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장 내에서도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은 이달 말부터 수강생을 모집한 뒤 3개월간 NCS반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2월에는 사업 결과에 대

한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063-290-1940)로 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NCS 기반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NCS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청년네트워킹 데이 개최

'지역 청년 도전과 성장' 주제 축제 사업 성과 우수사례 발표·전시

남원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마루'의 한 해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2025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청년네트워킹 데이'를 11월 1일 남원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 청년마루를 중심으로 추진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자리로 마련

됐다. 특히 청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남원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열린 축제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청년마루 성과보고 △청년기업 우수사례 발표 △청년기업 제품전시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부스 운영 △청년공간 토크콘서트(게스트: 래퍼 행주) △청년예술 공연 △청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장 참여 이벤트와 포토존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공간 콘서트에는 쇼미더머니6 우승자인 래퍼 행주가 출연해 도전과 전환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전

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마루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원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청년 및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신청 없이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남원청년마루 인스타그램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통합돌봄사업 앞두고 민·관 머리 맞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포럼회의 정부 정책 방향·현실적 과제 공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완주형 통합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완주군 소셜굿즈센터에서 '2025년 완주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포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사업에 대비해 완주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아젠다 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인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심부건 완주군의회 의원, 임평화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완주군 관련부서 팀장을 비롯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임평화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 통합돌봄정책 방향 안내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완주형 통합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완주군>

△2026년 완주군 통합돌봄정책 추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완주군 복지현장의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평화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완주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아이디어가 도출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젠다 포럼 정책위원회는 완주군, 완주군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완주군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완주형 통합돌봄사업' 모델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효율 극대화'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 모델 종이 사용 감축 탄소중립 실현

남원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트 회의시스템'이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년 동안 종이 문서 위주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테블릿 PC를 활용, 매달 평균 20회 정도의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테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 회의시스템에

공유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 논의 내용을 디지털로 즉시 기록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종이 자료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종이 사용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 회의 운영은 단순한 회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남원시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 표명이자 스마트 행정 도입의 디지털 혁신사례"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책마을 가을 감성축제 '브런치페스타'

내달 1일 복합문화체험축제 개최 '샌드위치 쿠킹클래스' 큰 관심

완주군은 오는 11월 1일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철우)과 함께 '2025 완주 스테이션에 브런치 페스타'를 삼례책마을 일대에서 개최한다.

'브런치 페스타'는 전북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은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로컬형 문화행사로 이번 페스타를 기획했다.

행사 당일 삼례책마을 일대는 브런치, 북토크,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다양한 전

시가 진행되며, 완주의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브런치 메뉴와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완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브런치를 만드는 '샌드위치 쿠킹클래스'는 정원 24명 모집에 80여 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 MBC PD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오느른' 최별 대표 초청 토크쇼, 레트로 뮤직 타임, 버스킹, 플리마켓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30일 '출동! 히어로' 아트상품 출시 기념 및 '마음은 콩밭' 생태놀이터 개장 행사를 열었다. <사진=남원시>

남원김병종미술관, 생태놀이터 개장·ESG 협약

시·전북소방본부 불용제복 활용 아트상품 출시·생명존중 MOU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30일 오전 10시 '출동! 히어로' 아트상품 출시 기념 및 '마음은 콩밭' 생태놀이터 개장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장과 전북소방본부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제작한 '출동! 히어로' ESG 아트상품 출시를 기념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김병종 화백의 생명 철학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은 콩밭' 생태놀이터 개장식도 진행됐다. 생태놀이터는 나무, 물, 흙

등 자연 친화적 재료를 활용한 놀이 시설과 생태 학습 공간으로 구성됐다. 남원시와 전북소방본부가 함께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업무협약'은 불용 제복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통한 ESG 가치 실현과 안전의식 제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체결됐다.

협약의 첫 번째 결실인 '출동! 히어로' 아트상품은 김병종 화백의 생명철학을 상징하는 '화홍산수' 작품을 모티브로 남원시 B1를 활용해 제작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해 소방관의 불용 제복을 활용했다.

또한 '로보카폴리'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특별공원이 이어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적성면 일광사, 어르신 효도 밥상 공양 행사

200여명 초청 삼계탕 대접

전통사찰 일광사(주지 선동 스님)는 지난 29일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효도 밥상 공양 행사'를 열었다.

선동 스님은 "수년 전 일광사 주지로 부임한 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지속해오고자 결심했다"고 전했다.

일광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군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일광사 앞 적성강 교각

주변에서 '생명 존중 방생 축원행사'를 개최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눴으며, 5월 5일에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열어 군민, 불자, 탐방객들에게 순창 불교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일광사는 일제강점기 김세현 스님에 의해 창건된 한국불교대종소속 사찰로 2014년에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229호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제118호로 지정받는 등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 자치공간 우수사례 주목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지난 29일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를 방문해 청소년 주도형 청소년공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학교 교사, 마을공동체 교사 등 11명이 참여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공간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봤다.

이날 '고래' 8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임원 7명이 직접 시설을 안내하며 공간의 의미와 활동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다큐멘터리 〈고래,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를 시청하며 고래의 탄생 배경, 청소년 주도의 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영상 시청 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에서 위원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성인 지도자들이 뒤에서 조력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며 "학교 안에서도 이런 자율성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래는 청소년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기반형 청소년공간이다"며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안숙선명창의여정 전통음악 '가을밤 소리여행'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판소리의 고장 남원시에서는 우리 전통 소리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가을밤 소리여행 공연이 안숙선 명창의 여정 야외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열린다.

판소리와 국악의 멋과 흥을 보존하고 전승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공연으로 10월 가을밤을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로 수 놓으려고 한다.

이번 '가을밤 소리여행'에서는 모듬북의 아취팀, 칸텐포러리 댄스그룹 모던테이블, 판소리 서의철, 고수 전계열 등 젊은 예술인들의 무대로 안숙선명창의 여정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의 보유자인 안숙선국창은 "청명한 가을 밤, 국악계 선·후배님들의 멋진 무대를 응원하고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순창경찰서 상습체납차량 불시 집중 단속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변호관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청정바다갯길 안병관 대표, 무주군에 200만원 기탁

‘청정바다갯길’ 안병관 대표가 30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청정바다갯길’은 부안군 곰소항에서 각종 젓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부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새우젓을 납품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매년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2023년 1백만 원, 2024년 1백만 원)해 왔다. 안병관 대표는 “그동안 무주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는 ‘고향사랑 무주사랑’의 마음을 2배로 키워다”라며 “무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작은 힘이나마 늘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 마령면 새마을회·활력센터, 제철음식 나눔행사 진행

진안군 마령면 새마을회(협의회장 이학중, 부녀회장 조은행)와 마령활력센터(이사장 정환오)는 함께 지난 29일 지역 주민들에게 영양 가득한 제철요리를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마령면 새마을회와 마령활력센터 제철요리팀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로, 마령면에서 재배하고 제철에 수확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령면 내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마령면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계면, 김동신 의병장 제9회 추모제 봉행

의병 정신 계승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29일 장계면 명덕리 김동신 의병장 묘소에서 ‘김동신 의병장 제례봉행 및 제9회 추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 관계자, 후손, 주민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김동신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사)김동신의병장 추모사업 주관으로 마련된 추모제의 초헌관에 조장호 장계면장, 아헌관에 오재영 의암주는개정선안회장, 종

헌관에 송병주 김동신의병장추모사업회장이 각각 맡아 제례가 진행됐다. 추모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모사와 제례봉행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김동신 의병장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추모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29일음력 9월 9일 장계면 명덕리 김동신 의병장 묘소에서 김동신의병장 제례봉행 및 제9회 추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학생들과 함께 전북 천리길 환경 정화 플로깅 실시

김제 지평선중 학생들, 천리길 걸으며 환경보호 실천

전북자치도는 30일 군산시 선유도 일원에서 ‘2025 김제 지평선중 전북 천리길 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전북 천리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신체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 지평선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총 41명이 참여하여, 전북 천리길 군산시 ‘고군산길 구간’(6km, 선유도항~몽돌 해변)을 걸으며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려진 캔과 유리병을 활용한 재활용(Upcycling)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장정철 기자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축제 개최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가 최근 완주군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진로 탐색이 어우러진 진로체험축제 ‘진로무비 어드벤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완주아동권리영화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주제로 구성된 15개의 진로체험 부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내 인생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진로 여정을 경험했다. 박현정 센터장은 “영화를 매개로 청소년들이 진로와 삶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진로는 정답이 아닌 탐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내면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풍경채바움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부

익산시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을 전하며 지역에 온기를 더했다.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풍경채 바움 어린이집(원장 김금주)’은 30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해 200만 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6일 원아들이 직접 참여한 ‘풍경채 바움 어린이집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체험을 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장으로 진행됐다. 바자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자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다. 김금주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나눔 활동에 참여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다”며 “복지시설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아동을 위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고수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실시

고창군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성룡, 서학웅)가 ‘사랑의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지붕에서 누수가 있었고, 대문 역시 심하게 녹이 슬어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힘을 모아 낡은 지붕을 보수하고 누수를 완벽히 차단했으며, 녹슨 대문은 말끔하게 페인트칠하여 새것처럼 단장했다. 유성룡 고수면장은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고수면을 만드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다음세대학교·새마을부녀회, 저소득 35가구에 반찬 나눔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군산 다문화 대안학교 ‘다음세대학교’(교장 오혜미)와 군산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영자)가 관내 저소득가정 35세대에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육볶음을 포함한 4가지 찬으로 구성된 반찬 세트로, 다음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10여 명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조리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오혜미 다음세대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이런을 계기로 학교 밖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복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을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생활 습관

- 물 자주 마시기
- 실내 환기, 청소로 미세먼지 차단
- 외출 후 손, 발 잘 씻기
-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
-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기

강감, 독감,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폐암, 천식, 인두염,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만성폐쇄성질환(COPD)

주요 호흡기 질환 종류

〈一事一言〉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고상만

인권운동가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경찰 창설 80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더해져 더욱 거창한 축하 행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말 국민의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1998년이였다. 전국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만 3년을 일하다가 그해 전주교 인권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해 10월 21일, 나는 ‘경찰의 날’을 맞아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대표적인 인권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약 20여 명의 경찰관들이었다. 이 고발장은 예상보다 파급력이 대단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그 때에, 경찰 역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며 ‘경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때에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장 등을 대거 고발하니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한 것이다. 그야말로 잔칫날에 재를 뿌려도 단단히 뿌린 것이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탈옥범 신장원을 검거한다는 미명 하에 권총을 남용하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신장원은 1989년 3월 28일 강도살인죄로 무기수선고를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

1997년 1월 20일 탈옥했다. 이후 1999년 7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그는 907일간 경찰을 농락하며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자 2년 6개월 탈옥 기간 중 13번이나 검거 기회를 놓친 경찰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다. 결국 경찰이 무리수를 저질렀다. 신장원 검거를 위해 총기 사용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신장원 검거 대신 늘어난 것은 국민의 피해였다. 그중에는 경찰이 쏜 총이 하교길 여고생의 허벅지를 관통시킨 사건도 있었다. 신장원도 아니고 도망치는 단순 절도범을 검거한다며 쏜 총알이었다. 술 마시고 자기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가장이 총에 맞고 숨지기도 했다.

그 중 압권은 인파로 가득찬 백화점 안으로 도망간 절도범을 잡는다며 경찰이 쏴아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다. 경찰의 총기 남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경찰의 날’에 경찰을 고발한 이유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더 빨리 왔다. 고발장을 제출한 그날 밤이었다. 경찰청 최고 위층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경찰청사에서 조용히 면담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면담에서 경찰 수뇌부는 그동안의 총기 남용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 인권단체가 총기 사용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내가 당부했던 말은 “총기를 사용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경찰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시뮬레

이션 훈련을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찰 장구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벌어진 비극은 너무나 참혹했다. 지난 2001년 8월 1일 대전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 인질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날 새벽에 침입한 강도는 자신의 손에 칼을 동여맨 채 30대의 아이 엄마 목을 겨누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강도는 그렇게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었다.

아이 엄마는 함께 인질이 된 어린 두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강도를 흥분시킨 것은 출동한 경찰이었다. 대치 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인질범이 들으라며 “야, 너 찌를 수 있어? 찌르려면 찌러봐,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뭐 하나 인마”라며 도발했다.

결국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경찰이 칼 들고 있는 강도의 손을 제압하려고 각목으로 내리친 것이다. 하지만 작은 각목은 그대로 부러졌고 그 순간 같은 아이 엄마의 목을 파고 들었다. 결국 아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내가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한 순간이었다.

세월은 또 흘러 2021년 11월 15일,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충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에서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부인은 범인에게 목

을 찔렸고 남편과 딸 역시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남경과 20대 여경이 피해자를 구하는 대신 ‘숫구치는 피를 보고 도망을 쳐’ 국민적 비난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후 두 경찰은 해임되었고 2024년 직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무능으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이처럼 총을 쏘아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찰, 강력법을 제압하기 위해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찰, 위기 상황 대처법을 익히지 못한 경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경찰 창설 80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5년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 늘어난 권한만큼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해질 수 있을까?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인공태양 유치해 미래 에너지 주권 확보하자

전북자치도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좌우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내세운 이번 도전은, 21세기 에너지 주권과 국가 기술력을 가능할 대형 프로젝트다.

1조2천억이 투입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혁신의 시한대이자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인공태양’ 기술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없다. 원자력의 안정성을 뛰어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이유다.

새만금은 후보지로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50만㎡ 이상의 단일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6차선 진입도로와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2027년 공사 완료 시점이 사업 착수 일정과도 일치해 행정·물리적 여건 모두 이상적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연구 인력 이동과 정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자리 잡은 연구 생태계다. 군산의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2012년부터 플라즈마 원천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소는 핵융합 연구시설과의 기능적 연계성이 높고 기술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RE100 산단 등도 인접해 있어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상용화 가능성 역시 높다. 새만금이 ‘에너지 혁신 허브’로 도약할 충분한 토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유치가 확정되면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350명 이상의 고급 연구 인력이 직접 고용되고 관련 전기·전자·조선도 분야 기업 및 스타트업이 대거 유입돼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R&D특구 트라이앵글’—새만금의 미래에너지 연구거점, 전주·완주의 농생명 융합 거점, 정읍의 융복합 혁신 거점—이 완성되면, 전북은 국가 혁신지도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력과 공감대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과 유치대응TF를 꾸려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결의대회를 통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지역의 단합된 의지에 달려 있다. 도민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전북의 미래산업 지도에 빛을 더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향할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일이다. 인류의 에너지 혁명을 향한 이 거대한 도전에 새만금이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뜻과 국가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이 곧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연륜(年輪) / 김기림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아래 깔리는
서른 나뭇잎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달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년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욕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돌리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에 실험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속’,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다. 한국전쟁때 남북대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독자광장

기초질서, 공동체를 위한 약속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목표 교통질서, 일상생활 주변, 서민 경제

생활에서의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일상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확립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노쇼·악성리뷰,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주취폭력·무전취식 등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경제질서 확립’ 활동은, 정상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장사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과 시간을

보호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쇼, 악성리뷰 협박, 고의적 환불 요구 등은 이제 단순한 민폐가 아닌 서민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주취 폭력행위 역시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생계 침해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영업 방해,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주취 범죄는 업주에게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장기적인 영업피해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

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작은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단호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이 접수되면 예약자 추적과 통신자료 확보, 피해 규모 분석 등을 통해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악의적·반복적 행위는 여죄 등 고의성을 입증한 후 구속 수사 등을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방중심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하는 공동체 치안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사회는 제약을 입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완

성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모두의 생계를 지키는 정리가 실현됩니다.

기초질서는 법전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시민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는 단속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곧, 이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침해하는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고, ‘법이 약자를 지킨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아름

홍복사대웅전목조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 지정일 - 2000년 6월 23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김제시 흥사동 263번지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10.31 金曜日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무주군 무주읍’에 반하다!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 ‘무주군 무주읍’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된 것.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이날 개최된 ‘2025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세계 52곳의 마을을 시상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반열에 선 ‘무주군 무주읍’은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정하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역문화와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로, 2021년부터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해마다 문화 및 자연 자원, 경제·사회·환경적 지속 가능성, 관광 개발 및 가치사슬 통합 등의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65개국 270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이 중 52곳의 마을이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이름을 올렸다. ‘무주군 무주읍’은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으며 2월에 국내 후보지 8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주인공이 됐다.

※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전 세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촉진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해 있다.

‘무주군 무주읍’에 쏠린 눈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무주군 무주읍’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주읍은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중심지로서 △향토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을 품은 청정지역, △보물 한포루와 무주향교 등이 대변하는 전통문화의 고장,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활기를 불어넣는 환경생태문화휴양지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축제와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 사업’을 비롯해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관광개발 사업들 역시, 세계적인 관광마을의 품격을 높일 동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무주 마실길(금강마실길, 금강담새길), 소이나루공원, 지남공원, 공립 최북미술관, 김한태문학관, 무주상상만디숲(복합문화시설) 등의 생활·문화자원이 ‘삶터’로서도 충분한 무주읍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명성은 무주군 무주읍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 되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 사용과 공식 홍보 페이지 제작이 가능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인터뷰

황인홍 무주군수

“자연특별시 무주의 특별함이 세계를 사로잡았다!”



관광기구가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

“무주군 무주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환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관광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력 강화에 힘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무주다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관광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공동체 발전 모델로 주목받는 만큼 문화유산 보존과 친환경 관광 촉진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네트워크’ 내에서의 시너지 효과와 후속 지원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무주읍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주관 국제행사 유치, △최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의 상설화, △관광 및 지

역개발 관련 국내의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과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에 동력 무주군은 무주읍의 자연과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이자 △태권도원을 품은 세계 태권도 성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펼쳐지는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이며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산악권 교통의 요충지인 것이다.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2020~2025)’, ‘구전동 33경 관광명소화(2024~2026)’, ‘덕유산 산림욕장(2022~2025)’, ‘둘레길 조성(2021~2025)’, ‘부남면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2020~2026)’ 사업 등을 통해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군은 문체부로부터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관광 기반시설 보유 정도, 관광객 방문, 정책적 노력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을 획득하며, 전국 10대 지역 관광 매력 도시로도 선정된 바 있다.

※ 반디랜드 • 2023~2026년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 2021년 대한민국 안심관광지 선정 • 곤충박물관: 우수박물관 인증 획득 / 태권도원 • 2023~2026년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메뉴 선정 • 2022, 2024~2025년 웰니스 관광지 선정 / 향토산자연휴양림 & 무주노을 • 2023년 전북형 자연치유 관광지 선

정 / 무주반딧불축제 •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 5년 연속 최우수축제 •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2024년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축제, 2025년 아시아 친환경축제

/무주=최희호 기자

